

창세기(9)

28 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가 있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생명의 말씀을 먹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부터 선포될 때에 아담 안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전 삼으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빛의 말씀으로 다 삼킨바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성전이신 주의 성령께서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충만히 먹고 성령을 마시므로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권을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지금 모습은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뭐니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말씀 전체의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 천지창조로 시작하고 마지막 책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젠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 끝이 난다는 얘기지 그것이 세상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은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생명을 얻으려고 오지 않는구나. 생명을 얻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명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 외의 것 육신의 썩어질 것 때문에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온다는 사람은 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나가는지도 몰라요. 대개 보면 육신의 일 때문에 나가요. 육신의 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큰 교회 청빙 받아 가는 것은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예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게 뭐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온전히 회복하는 분임을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내가 왜 이것을 읽는지 이것을 배워서 써 먹으려고 읽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받아가지고 남을 살리려고 읽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 장 20 절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사도행전 3 장 20 절, 19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에 인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죄들이 지워지니라.” 죄들이 지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라.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다시 말해서 “창세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어떤 일입니까? 만물이 회복될 것을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 요지가. 그리고 22 절을 보면,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라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 전체는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 장 21 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개와 고양이가 아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예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 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본다면 칼빈 선생이 좀 다르게 생각할 텐데. 왜 누구는 날 때부터 지옥가게 만들었고 누구는 날 때부터 천국 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 장 22 절, 21 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죄의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회복을 기다립니다.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무슨 뭐 목사들이 교회가 1 년이면 더 부흥될 것이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바라는 게 뭔가 하면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임하신다 하셨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못 보면 문제예요. 웃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요 .

이사야도 그때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죽게 되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지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재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바로 뭐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건 뭐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가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내 모습이 드러나 가지고 내가 회개하게 되지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야~ 좋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되지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똥굴게 되지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라 따라 다닙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사탄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다니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내 더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표적이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만물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회복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것 주님이 오시는 때 그리고 또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나만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회복하러 오시는 주님, 온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실해 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기회는 그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의 짐승에게도 말이죠. 그때 보면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짐승들이 채소만 먹습니까? 서로 잡아먹습니다. 피를 흘리며 잡아먹습니다. 그때에는 이사야서 11 장을 보면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니까?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 우리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지만 거기서 살기 이전에 이 땅도 회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너무 깜깜하게 모릅니다. 로마서 8 장 20 절 보면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창조물들까지 함께 고통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새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완전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종교인과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함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말씀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요즈음에 보세요. 크리스천 집안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창조되었다. 겉은 똑같이 생겼지만 속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 사람입니다. 껍데기는 같아도.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1 장 2 절에 있었던 심판 후에 재창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13 장 18 절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 했습니까? 육백 육십육인데 한 사람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수라. 그래서 인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육이라는 것이.

2 장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장 1 절,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리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사람이 쉬라고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를 보면 1 절에 ‘하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상이라는 것은 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영들이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게 다 타락해가지고 사탄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일곱 째 날, 일곱째 날에는 보니까 쉬셨다 그랬지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계속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더 앞 부분을 보면,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딱딱 끊어가지고 그것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은 그냥 쉬시니라 그러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곱째 날은 계속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히 쉬는 것을 얘기해요. 이 속에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육천 년이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히 하늘과 땅이 킹덤 오브 갓(Kingdom of God)과 킹덤 오브 해븐(Kingdom of Heaven)으로 하늘과 땅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도 하늘입니다. 여기도 하늘이에요.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늘에 가보세요. 별에 가보면 거기도 땅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공중 허공을 보면서 저기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전부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습니다. 지구 밑으로도 하늘이고 위로도 하늘이고 옆을 봐도 하늘이고 다 하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못 봐서 그렇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죄를 만들어내는 사탄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준 겁니다.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잠깐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심지어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지독한 사람들이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 겁을 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지금 여기가 토요일이라면 이스라엘은 무슨 요일입니까?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일곱째 날에 대한

오해예요.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달과 안식년과 안식 천년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쉬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 장 보겠습니다. 7 절에 보면요.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었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뭐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훗날에 여호수아의 진짜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안식을 줄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입니다. 항상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첫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요. 둘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동일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만 잘 알면 됩니다.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이제 사람도 자기 위치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데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 아래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9 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이 안식이라는 게 뭐니까?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없어지고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 장에 나오는 일곱째 날을 복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토요일을 복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을 복을 주었다. 영원한 세계에 복을 주었다. 죄가 다 도말되고 지워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다 지워버리고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죄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죄를 만들어냈던 사탄의 존재도 영원히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이러한 때가 될 때는 하나님도 쉴 수 있고 사람도 쉬고 모든 창조물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마다 창조물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물들의 소망은 이 산전초목들의 유리한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저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지만 이 창조물들은 절대로 꿈작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천년 기간을 바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곱째 천년은 바로 곧바로 영원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아침은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날은 저녁과 아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재림하시면 끝까지 갑니다. 저녁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큰 신비로운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 장 10 절에서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말라기 4 장에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살 때 내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혈기가 있을 때 주님을 잡아갈 때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아갈 때 그냥 칼을 가지고 하인의 귀를 떨어트릴 정도로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어디 가지만 해도 성전이 움직이니까 가기만 해도 앓은뱅이들도 별떡 별떡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성전인데 성전이 다녀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가 다 빠져나가야 되요.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 수많은 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또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돈 한 푼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꼭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돈 한 푼 없어도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예요. 돈이 한 푼 없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함으로서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자들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